보도자료
NEWS RELEASE
방송콘텐츠진흥재단
Broadcasting Content Promotion Foundatio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2차 IS비즈타워 1002호 TEL:(02)6123-4300 · www.bcpf.or.kr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제2회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 시상식
(왼쪽 두번째) 롯데홈쇼핑 유혜승상무, (뒷줄 첫번째부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상임이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사무처장, 한국엠씨엔협회 정용우사무총장, 픽업 박소희 이사, 라이브킹 김현기대표, (앞줄)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 수상자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정상모)이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롯데홈쇼핑, 한국엠씨엔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이 지난 11월 16일(금)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은 대중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우수 콘텐츠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전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의 윤리의식을 갖춘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기반을 조성하여 유해콘텐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자 개최하였다.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메이커부문과 라이브부문 대상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하였으며, 심사는 콘텐츠 제작과 발전가능성, 크리에이터 역량, 방송진행능력 등의 심사기준으로 6작품을 선정하여, 총 상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메이커부문4편] ·대상(1편) 10,000,000원 김문찬(팜스맨) ·최우수상(1편) 5,000,000원 강경욱(강쌤) ·우수상(2편) 3,000,000원 김지혜(겨울서점), 나현갑(지무비) **[라이브부문2편]** ·대상(1편) 10,000,000원 함정균(함박TV) ·최우수상(1편) 5,000,000원 홍삼인(쌍둥이엄마TV)

▲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사무처장, 메이커부문 대상 김문찬(팜스맨)수상자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이사장, 메이커부문 최우수상 강경욱(강쌤)수상자

▲ 롯데홈쇼핑 유혜승상무, 메이커부문 우수상 나현갑(지무비)의 대리수상자 나두환

▲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사무처장, 라이브부문 대상 함정균(함박TV)수상자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상임이사, 라이브부문 최우수상 홍삼인(쌍둥이엄마TV)수상자

메이커부문 수상작으로는 다육식물을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취미생활에서 귀농,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

팜스맨(김문찬)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영상과 단편 영화를 접목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 강쌤(강경욱)이 최우수상, 여러 세계문학의 번역본을 출판사별로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든 겨울서점(김지혜)과 영화리뷰, 비하인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만든 지무비(나현갑)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라이브부문 수상작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행을 주제로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한 함박TV(함정균)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중년부부 크리에이터로 쌍둥이 엄마는 요리를, 쌍둥이 아빠는 먹방을 진행하는 쌍둥이엄마TV(홍삼인)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MCN육성프로젝트 <1인방송제작스쿨> 수료식과 우수교육생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1인방송제작스쿨>은 시니어, 경력 단절여성,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관련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 중 우수교육생을 3명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최우수상 3,000,000원 최서원교육생, 우수상 2,000,000원 조희란교육생, 우수상 2,000,000원 박민혁교육생)

▲ (가운데부터) 우수상 조희란교육생, 최우수상 최서원교육생, 우수상 박민혁교육생, MCN육성프로젝트 <1인방송제작스쿨> 교육생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 상임이사는 “1인 방송은 지상파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소재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청시간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재단은 대중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건전한 콘텐츠를 육성하고, 크리에이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인 방송 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